

두산아트랩 공연 2026 ②

박소영

경계넘기: 신진순박소영박뽀또

Part.1

122(목)~124(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쇼케이스 70분

*아티스트 토크 124(토) 3시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bang.com/dy/7508

연출노트

2005 년, 2020 년, 2026 년

박소영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계넘기: 신진순박소영박뽀또 Part1>을 쓰고
연출하고 발표한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공연을 통해
어머니 성(姓)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성(姓) 이전에 성(姓)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
검색을 해보니, "성(姓): 명사, 혈족(血族)을 나타내기 위하여 붙인
칭호. 주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대대로 계승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성이란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갖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 성을 뜻하는 한자가 여자와 생을 합친 합성어인데, 이 성을
대물림 하는 주체에는 여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아마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농경사회로
진입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본인의 어머니만을 알 뿐 아버지를 알지
못했으며, 자연히 혈연관계 또한 모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성을 뜻하는 한자는 거기서부터 파생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2026 년으로 오니 고대의 풍습은 씻은 듯 사라지고, 어머니의,
딸의, 여성의 성은 한 세대가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한국의 부성주의를 대표하는 호주제는 2005 년에 폐지되었습니다.
2005 년 당시 호주제 수호론자들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호주제가
폐지되면 국민은 모두 짐승이 된다는 논지의 시위를 했습니다.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는 폐지되었는데요.
그로부터 20 년이 지난 2026 년, 우리는 이제 없어진 호주제에서
자유로워 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 하나를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 영상 링크 QR 코드, 출처: 닷페이스 유튜브

15 분 가량의 영상인데요 어머니 성으로 변경을 성공한 당사자 분이
나오시고, 어머니 성에 대한 여러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추천 드려요.

이 영상은 2020 년에 닷페이스라는 단체에서 제작되어 유튜브
플랫폼에 서비스 된 영상입니다. 2020 년, 2005 년 호주제가 폐지된 후
15 년만에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 따르면 어머니 성으로의
변경은 여전히 뚜렷한 이유 없이는 요원한 일 같습니다.

2020 년 이후로도 어머니 성으로 변경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2021 년, 2022 년, 2023 년... 2 년 전인 2024 년에는 3 월 8 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40 여명의 자녀가 어머니 성을 쓰고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법원에 성명 변경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2024 년에도 '어머니 성 쓰기'는 아직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없으며, 운동의 형태로 이어져 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6 년

저는 한국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90년대 초반부터 법이 실행되었던 해인 2008년, 바로 지난 달인 2025년까지 여럿의 목소리를 통해 꾸준히 이어져 왔던 '어머니 성 쓰기' 행위에 목소리 하나를 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20년동안 이렇게 꾸준히 같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법이라면, 이 법은 다시 한 번 바뀌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에 함께 목소리를 얹어 주신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럼 공연 재미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제 목소리를 들어보려 극장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26년 서울 두산아트센터에서, 박소영 드림

기획 두산아트센터
구성·연출·진행 박소영

드라마터그·접근성매니저 강보름
영상출연 김휘규 박뿐또 박소영 신진순
촬영·편집 김수민
사운드 정혜수
조명 김영준
영상기술 김윤환 김성호
기술지원 박선영
음향 크루 김세린 양의열
수어통역 김아영 신지선
실시간문자통역 AUD 사회적협동조합
프로덕션 무대감독 김현세(암전)

[두산아트랩 공연 2027 공모 안내]
일정 2026.5.4~2026.5.28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